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강점

전 속 영(나사렛대학교 교수)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관련되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지정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강점에 대해 현재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의 실태 파악을 토대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점 뿐 아닌 단점 및 보완점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족 실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토대로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현황의 증가추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된 기관이 편중되어 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지역만으로 국한 시킨 이유가 모호하며, 더욱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뿐이 아닌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복지관, 종교단체, 이주노동자센터 등)을 분석기관에 포함시켜 유목화시킴으로써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별성, 강점 및 약점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근거가 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강점으로 제시한 요인들의 도출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분석 기관의 편중으로 인한 결과임을 감안하더라도 분석틀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센터운영 측면, 결혼이민자가정 측면, 다문화사회 측면의 강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실태파악 없이 제시된 결과는 그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실태파악을 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스템, 자원, 전문인력 확보정도, 프로그램의 전문성 등 크게 시스템과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유진이, 홍영균, 2007)에서는 자원(인력,

공간, 재정 등)과 기능(프로그램, 역할 등), 파트너십(관련기관과의 연계성)으로 분석하면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에 밝히고 있듯이 다문화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델과 이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한 데이터를 근거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함께 그 외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결과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델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이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